

# 여성 구급대원의 현장 스트레스 경감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공 하 성\* · 이 란 희\*\* · 이 성 철\*\*\*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경일대 소방방재학과 · \*\*한양대 행정학과 · \*\*\*포항북부소방서

## A Study on Searching for Reduction of Women EMTs's Stress

Ha-Sung Kong\* · Ranny Lee\*\* · Seong-Chul Lee\*\*\*

\*Dept. of Disaster Science University of Seoul·Dept. of Fire Safety, Kyungil Univ.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Hanyang Univ.

\*\*\*Pohang Buk-bu Fire Station

### Abstract

The rate that women's EMTs(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fire department occupy is increasing, but my general plan is aimed at suggesting the improving plan for the working environment of women's EMTs paying attention to the duty stresses of increasing women's EMTs, because improvement for the working environment of women's EMTs is being proceeded slowly. I suggested my improving plan for solving the working stress on the basis of a survey of the Recognition against women's EMTs as follows. Firstly, I suggested that physical strength of women's EMTs should be managed well continually via program establishment and a defined evaluation not only by employing a professional person in charge for physical strength in firehouse, but also by replenishing the suitable number for the urgent mobilization. Secondly, I suggested that the suitable number for the urgent mobilization should be increased to 3 including an ambulance driver. Thirdly, I suggested necessity such as the fruitful education and the creation of circumstances that can focus on education for improving participation rate, development of various new educational program, incentive program and penalty. finally, I suggested the fact that is related to the actual re-amendment of the concerned law and ordinance such as not only the smooth treatment of penalty for a traffic signal violation of ambulance and the legal remedy system due to aggravation of a patient's condition during a first-aid course, but also workshop and meeting among the periodical EMTs and administration of special therapy program and sufficient recess.

**Keywords : Women's EMTs, Stress, First-aid, Recess**

## 1. 서 론

### 1.1 연구목적

구급의 발전과 성장은 화재중심이던 소방조직을 한 단계 발전시켰고,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여러 직종의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국

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무원 중의 하나로, 기본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와 구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펼쳐지는 고드름 제거, 잠긴 문 개방, 쌓인 눈 제거 등 다양한 서비스와 봉사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소방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의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가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증가하고 변화하고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 Seong-Chul Lee, Pohang Buk-bu Fire Station,

332, Jungangro, Buk-gu, Pohang, Gyeongbuk, O · P : 054-260-2119, E-mail:

Received October 20, 2013; Revision Received December 2, 2013; Accepted December 11, 2013.

한편, 2012년 경상북도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를 살펴 보면, 2011년 기준 화재건수는 3,231건, 인명피해는 부상 119명, 사망이 139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여성 구급대원의 업무인 구급 건수는 78,530건에 82,248명을 이송하여 소방의 중요 업무로 부각 되고 있다[1]. 이처럼 화재피해와 인명피해는 소방행정 통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역할에 있어 여성구급대원의 비중이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다양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여성구급대원의 경우 24시간 2교대 또는 부분적으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 긴장감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처참한 장면을 목격해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PTSD)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유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2].

이러다 보니 구급 업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2011년에는 소방기본법에서 분리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119구급대를 현재의 소방서에서 분리하여 질적·양적 성장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8월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국의 신설은 구급을 또 한 번 변화와 발전을 통해 성장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있어 앞으로 구급에 대한 많은 재정적인 지원과 구급대원에 대한 복지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소방에서 구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미흡한 근무환경, 부족한 출동인원과 전문성을 갖춘 대원의 부족, 이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구급대원 중 여성구급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여성구급대원의 업무스트레스에 주목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여성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고 그에 근거하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경험적 연구로, 기존문헌고찰과 함께, 설문조사가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과 각종 통계자료집을 토대로 한국 구급의 역사, 여성 구급대원의 현황 중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그 대상을 경상북도 여성구급대원에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간적·비용적 제약에서 기인한다.

설문조사방법은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경상북도 16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여성구급대원 전체 1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구급현장에서의 스트레스 및 문제점 등을 통해 스트레스 경감방안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여성구급대원은 구급차에 탑승하여 현장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급출동이 없을 때는 안전센터에서 각종 대장 정리 및 문서생산, 통계작업 및 예방, 방호, 민원 업무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문헌조사와 설문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통해 여성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체력적 한계를 느끼는지와 함께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구급차에 탑승인원이 몇 명이 적절한지, 구급교육이 적절한지와 함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서 두려움을 느끼는지 여부와 함께 느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구급대원의 스트레스 경감방안을 제시한다.

### 1.3 선행연구검토

소방공무원에 대한 기존문헌은 주로 역할증진, 역량강화, 근무환경개선, 운영방안, 직무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안세란, 2007; 김수희, 2008; 서의수, 2009; 이지예, 2009; 이소석, 2010; 김영길, 2011; 배전모, 2011; 임승복, 2011). 그러나 여성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안세란, 2007; 김수희, 2008; 임승복, 2011)와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배전모, 2011)는 제한적 수준에 머무른다. 기존문헌을 자세히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Previous research[3]~[10]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내용
안세란 [2007]	소방조직내 여성 소방공무원의 역할증진 방안[경기도여성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여성공무원의 현황과 연도별추이, 여성공무원 활용의 중요성, 소방행정서비스의 특성과 유형, 근무환경, 조직의 역할, 여성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남,여대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한 향후 여성의 역할 증진방안을 연구
김수희 [2008]	여성 소방공무원 역할증진방안 연구	현재의 소방에서 여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 보았으며 육아정책 및 모성보호 등에 관한 언급, 소방조직에서의 여성의 채용과 활용에 대한 이상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

(Table 1 계속)

서의수 [2009]	119구급대원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119구급대원들을 중심으로]	119구급대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가운데 119구급대원들의 처우개선과 직무만족도를 위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기위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이지예 [2009]	119구급대의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고찰	구급차와 구급인력의 확충과 보장을 통한 운영방안 개선에 관해 연구
이소석 [2010]	소방공무원 전문 인력 강화 대책	전문성에 따른 배치현황과 외국의 소방현황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고 사례등을 분석하여 소방공무원 전문성 개선방안을 연구
김영길 [2011]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연구[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원충원 없이 변형 3교대 근무제도에 관한 근무환경과 격투에 시달리는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대응력 부족과 그에 따른 안전사고 유발에 대한 근무환경, 승진발령으로 인한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복지혜택부족에서 오는 근무환경을 연구범위로 정해 경기소방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배점모 [2011]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 및 우울간의 관계 비교 연구	출동빈도, 출동충격정도, 생활사건, 통제성, 직무특성, 외상 후 스트레스 등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비교연구
임승복 [2011]	여성 소방공무원의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와 의 관계 연구	여성 소방공무원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느끼는 직무만족도, 정체감, 자기효능감등에 관한 연구

## 2. 이론 고찰

### 2.1 구급의 역사

구급의 역사를 살펴보면 1979년 9월 1일 서울에서 대한의학협회 주관으로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가 운영이 된 것을 시초로 1980년 대전, 1981년 부산, 1982년 서울에서 구급 업무를 소방에서 이관 받아 시범 운영하였다.

1982년 보건사회부와 내무부가 상호 협조하여 소방서에 구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야간 구급환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규정 [내무부 훈령 제716호, 보건사회부 훈령 제447호]을 마련하였으며 1983년 소방법상 구급업무가 소방의 기본업무로 법제화되어 전주, 수원, 청주, 마산, 춘천, 울산, 제주 등 7개 시로 확대 운영되었다.

1992년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제

정되어 구급대에 대한 장비, 인력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에는 소방방재청이 개정되어 「구급대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소방기본법」 제35조에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 운영 규칙」 등 제반 규정이 정비되었다.

그리고 2011년 「소방기본법」에서 분리되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구급대의 설치근거가 명확해져 소방서마다 구조대를 별도 운영하는 것처럼 구급대도 분리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을 보면 “소방방재청장 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

### 2.2 여성구급대원의 현황

2012년 6월 30일 기준 소방방재청 내부자료를 보면 전국 16개 시, 도 여성구급대원 현황은 전국 여성 소방공무원 2,334명 중 958명으로 42.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중 경상북도는 176명 중 100명으로 56.8%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Table 2>를 통해 알 수 있다[12].

<Table 2> Women's EMT present condition

구분	전국 여성구급대원(명)	비율(%)
중앙	0	0
서울	144	37.7
부산	48	35.2
대구	14	16.0
인천	29	24.5
광주	44	61.1
대전	31	43.6
울산	7	20.0
경기	195	39.0
강원	17	20.2
충북	68	68.6
충남	72	40.6
전북	40	33.3
전남	113	83.0
<b>경북</b>	<b>100</b>	<b>56.8</b>
경남(창원)	34	36.5
제주	29	70.7
<b>계</b>	<b>985</b>	<b>42.2</b>

출처 : 소방방재청(2012), 내부 자료.

### 3. 설문을 통한 분석 및 문제점

#### 3.1 자료수집

2012년 3월부터 설문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여성구급대원의 상담을 통해 설문지 설계 중 내용을 작성하였고 8월에는 여성구급대원 3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테스트(pilot-test)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후, 최종 설문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메일로 9월에 배포하였다.

2012년 1월 1일 기준 경상북도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여성구급대원은 총 100명으로 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육아휴직 및 병가자 15명을 제외한 85명이 최종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최종분석대상 85명 중 메일을 열어보지 않았거나 열어보아도 회신이 없는 19명을 제외하고 66명(77.6%)이 설문에 응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Present condition for question investigation

구 분	현 황
배포량	85부
회수량(회수율)	66부(77.6)

\* 주1) 100명 육아휴직자 등 15명 제외

#### 3.2 설문결과

##### 3.2.1 체력적인 한계

<Table 4>은 구급현장에서 체력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매우그렇다 16명(24.3%), 그렇다 46명(69.9%), 그렇지않다 3명(4.6%), 전혀그렇지않다 1명(1.5%)로 조사되었다.

구급현장에서는 환자를 업거나 들거나 장시간 구조대와 구조업무를 해야 하는 등 체력을 필요로 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구급현장을 접하게 된다.

<Table 4> Stress due to strength

체력적인 스트레스	명(%)
매우 그렇다.	16(24.3)
그렇다.	46(69.9)
그렇지 않다.	3(4.6)
전혀 그렇지 않다.	1(1.5)

그러므로 여성으로서의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구급현장에서는 여성도 남성대원과 동일한 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임승복(2011)의 연구에서도 여성 소방공무원이 무거운 환자를 이송하면서 발생하는 체력적 한계로 인한 허리부상에 대한 압박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여 설문지의 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10].

##### 3.2.2 출동인원의 적절성

<Table 5>는 구급현장에는 몇 명의 대원이 출동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운전원포함 3명이 59명(89.6%), 운전원포함 4명이 1명(1.5%), 운전원포함 2명이 2명(3%)으로 무조건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며 현재의 구급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도로상황, 차량크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운전원 포함하여 3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Suitable boarding person of ambulance

적절한 탑승인원	명(%)
2명	2(3.0)
3명	59(89.6)
4명	1(1.5)

##### 3.2.3 구급 교육에 대한 인식

<Table 6>는 현재의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그렇지않다 8명(12.1%), 그렇지않다 55명(83.6%), 그렇다 3명(5%)로 조사되었다.

66명 중 63명(95.7%)이 현재의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그동안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였던 교육이 앞으로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공감이 가는 교육으로 바뀔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able 6> Satisfaction of emergency medical education

교육만족도	명(%)
매우 그렇다.	0(0.0)
그렇다.	5(5.0)
그렇지 않다.	55(83.6)
전혀 그렇지 않다.	8(12.1)

대학에서 배운 교육과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임상교육 등으로는 구급현장활동을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양한 질환의 발생과 식습관의 서구화로 그동안 알지 못한 질병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질환의 발견이 예상되고 있는바 구급대원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그 어느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상균(2005)은 최근 1년 동안 1회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44.1%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여 구급교육의 참여율 또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3].

### 3.2.4 현장에서의 두려움

구급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요인 중 두려움이 있는가와 함께 두려움의 원인을 설문하였다.

먼저, 구급현장에서 두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있다 61명(92.7%), 없다 5명(7.6%)로 조사되어 66명 중 5명을 제외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Table 7>에 따르면, 응급처치 능력 부족 때문에 환자상태가 악화할 것을 두려워하는 응답이 20명(30.4%),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이 19명(28.8%), 현장까지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15명(22.8%), 환자로부터의 감염 11명(16.7%)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구급경력이 많은 여성대원일수록 자신의 응급처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경력이 적을수록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과 현장까지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상균(2005)의 연구에서는 국민의 의학적 지식에 대한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응급의료 과실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등으로 의료분쟁 및 법적 소송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소송제기의 가능성에 대하여 구급대원의 60.9%가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

<Table 7> Cause of fear

두려움 원인	명(%)
응급처치 능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상태 악화 우려	20(30.4)
환자 또는 보호자의 폭행	19(28.8)
현장까지의 출동 어려움	15(22.8)
환자로부터 감염	11(16.7)

### 3.3 소 결

총 66명(100%)의 응답자 중 2명을 제외한 64명(97.2%)이 구급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조사되었으며 환자를 업거나 들거나 하는 등의 체력적으로 부딪히는 한계, 구급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차에 탑승하는 대원의 비효율적인 배치,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의 구급교육, 그리고 구급현장 도착 전까지의 두려움 등의 4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구급현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업무를 펼쳐야 한다. 이는 부상 방지와 2차적인 손상을 예방하고 구급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하여여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함이다.

구급현장에서 올바른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센터에서의 대기시간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센터의 여건은 대부분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서 여성구급대원에게는 대기시간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이 스트레스가 구급현장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4. 여성구급대원의 스트레스 경감 방안

### 4.1 출동인원의 보강 및 체력관리프로그램의 체계화

체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출동인원보강이 55명(83.6%), 근무방법개선 4명(6%), 구급장비의 다양화 3명(4.5%), 구급출동의 유료화 3명(4.5%)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구급대원의 체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원이 추가로 출동하게 된다면 체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체력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체력관리프로그램의 체계화를 제안한다. 소방공무원은 구급 등의 고강도 작업을 수행하기에 신체단련이 반드시 필요하다[14]. 현재는 소방관서에 체력단련장을 마련하여 필요시 구급대원이 자율적으로 신체를 단련하고 있어서 체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적인 체력관리담당자를 두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평가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15].

### 4.2 구급차 탑승인원의 적절성 확보

<Table 5>의 운전원을 포함하여 3명이 탑승하여 현장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59명(89.6%)의 여성구급대원의 이유를 정리해 보면 구급업무의 가장 중요한 환자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 업무의 부담이 확실해져 신속하고 정확한 안정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장 정지환자나 다발성 외상환자 등을 처치할 때 혼자만으론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진과의 통화나 원격진료시스템을 작동하는 등의 짧은 시간에 많은 처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1명보다는 2명이 적당한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환자를 들것으로 옮기거나 이송할 때도 2명이 들고 1명은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연속성이 생겨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구급차의 크기와 환자실의 규모 등을 봤을 때도 환자실에는 3명보다는 2명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에도 환자실에 여성구급대원과 남성구급대원이 있으면 환자나 보호자의 돌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여성구급대원 혼자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서 가는 것 보다는 남성구급대원 한 사람이 더 탑승하여 병원까지 간다면 심리적으로 여성구급대원이 안정감을 찾고 응급처치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의견이다.

<Table 8>은 119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으로 구급차에 운전요원을 포함하여 3명이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6].

<Table 8> Disposition of man power of 119

계	구급차		오토바이
	운전요원	구급요원	구급요원
12	3	6	3

출처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이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는 구급출동의 건수를 보더라도 현재의 2명에서 3명으로 출동인원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며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의 희생을 강요할 수만은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 4.3 내실 있는 교육 및 참여율 향상

구급대원은 현장에서는 의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이다. 이송 중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를 응급처치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결정지어지는 중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급대원은 수시로 응급처치 및 각종 질환에 대한 대처 및 의료법규 등을 교육훈련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설문결과, 현재의 구급교육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러한 이유 또한 다양하다.

여성구급대원이 바라는 교육은 첫째, 교육을 받을 때 편안하게 교육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을 받으러 소방학교에 출장을 가버리면 그 빈자리를 남아 있는 동료가 대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어야 교육에 집중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의 성과도 클 것이다.

둘째로, 교대근무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 및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근무시간에는 출동에 대비하여 근무하여야 하기에 교육을 받기에는 힘이 들고 대부분 야간근무를 마치고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다 보니 긴 시간의 교육은 집중력도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로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이다.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이 있지만 해마다 같은 내용이거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반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이뤄져 있어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교육에 관한 의견들은 결국 구급대원에게 맞지 않고 현실을 무시한 실적중심으로 짜진 정책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이버교육, 임상실습교육, 보수교육, 그리고 소방서 별로 자체 교육을 수시로 하는 등 많은 교육이 잡혀 있지만, 여성구급대원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준 높은 구급 관련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고 병원에서 받는 임상실습교육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단기간이 아닌 상시 반복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꿔야겠다. 또한, 매년 4시간으로 정해진 보수교육의 시간을 늘려 보수교육을 통해 좀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교육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구급대원이 의료지식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편성하여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파견근무를 통한 의료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은 당장에라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구급교육의 참여율 향상방안으로 의무보수교육시간에 미달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고, 우수한 교육이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4.4 두려움의 감소방안: 법적 안전장치, 구급대원간의 대화, 전문치료프로그램, 충분한 휴식

설문결과, 현장에서 여성구급대원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적인 안전장치마련 5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치료프로그램 운영 25.8%, 충분한 휴식보장 13.6%, 대원들간의 대화 9.1% 순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구급활동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소방기본법」 제50조 벌칙 규정을 보면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항이 만들어져 있으나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구급차의 신호위반 과태료의 원활한 처리, 응급처치 도중 환자상태 악화로 인한 법적인 구제 장치,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구급대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장치 등이 현실성 있도록 재·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9>는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한 자료이며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46명의 대원이 폭행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7].

<Table 9> Assault-damage present condition of about EMT of Gyeongbuk Province

구분	계 (명)	이송환자				가족 및 보호자			신고자 등 제3자		
		소계	읍주	단순	정신	소계	읍주	단순	소계	읍주	단순
2010년	104	75	59	15	1	27	18	9	2	1	1
2011년	71	49	47	0	2	17	15	2	5	4	1
2012. 6.30	46	38	37	0	1	5	56	0	3	2	1

출처 : 경상북도소방본부 내부자료, 2012

지금은 경상북도의 115대 모든 구급차에 CCTV가 설치되었고 녹음기와 녹음 펜이 구급대원에게 지급되었으며 언론의 지속적인 홍보와 구급대원의 위기대처 능력교육을 통해 폭행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로, 구급대원들 간의 많은 대화는 출동노선이나 상습적인 환자의 정보교류, 부족한 의료지식을 공유하며 공부할 수 있으며 여성구급대원들만이 겪는 어려움을 대화로 치료할 수 있어 두려움을 줄이는 대안 중에 하나이다. 정기적인 구급대원 간의 워크숍이나 모임을 통해 고충을 토로하고 해결이 가능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관한 전문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의 자살,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등 여성구급대원은 늘 겪는 현장상황이라고 혼자만으로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이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집단상담이나 상황극, 명상요법 등 전문적으로 잘 짜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언제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줄이려면 충분한 휴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려면 현재의 부족한 인원이 충분히 보충되어야 할 것이고 전 대원이 구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성구급대원뿐만 아니라 남성구급대원도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 5. 결 론

이제까지 여성 구급대원의 현장 스트레스의 요인과의 경감방안을 알아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체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동인원의 보강 및 소방관서에 전문적인 체력관리담당자를 비치하여 프로그램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구급대원의 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구급차 탑승인원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 및 법규정에 의해 현행 2명의 인원을 운전원인을 포함한 3명으로 출동인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수준 높은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반복적인 임상실습교육, 보수교육시간의 확대, 지역대학 및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파견근무를 통한 의료지식과 기술습득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구급교육의 참여율 향상방안으로 교육참여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적인 안전장치의 확충을 위해 구급차의 신호위반 과태료의 원활한 처리, 응급처치 도중 환자상태 악화로 인한 법적인 구제 장치,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구급대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 등이 현실성 있도록 재·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구급대원 간의 워크숍이나 모임,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관한 전문치료프로그램 운영, 충분한 휴식 등이 필요하다.

여성구급대원이 구급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고충에 귀기울여야겠다.

## 6. References

- [1] Gyeongbuk Fire Service Headquarters.(2012). "Fire Service data & Statistics."Dongyang Publishers.
- [2] JNNEWS.(2010.2.2.)
- [3] [http://www.jnnews.co.kr/news/service/article/mess\\_01](http://www.jnnews.co.kr/news/service/article/mess_01)
- [4] Se-Ran An(200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emale Fire fighter's Role in the Fire Services Organization."A Master's Degree of Kyonggi Univ., 107-111
- [5] Su-Hee Kim(2008), "A Study on a Plan for Role Promotion in Female Fire Officials."A Master's Degree of Kyonggi Univ., 67-69
- [6] Eui-Soo Suh(200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o the Job Satisfaction of 119-Members of Emergency: Seoul Metropolitan City."A Master's Degree of Dongguk Univ., 48-49
- [7] Ji-Ye Lee(2009),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peration Program of 119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A Master's Degree of Kongju Univ., 71-73
- [8] So-Seok Lee(2010), "The Professional Capability Reinforcement Plan of the Fire Fight."A Master's Degree of Kyungil Univ., 66
- [9] Young-Gil Kim(201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for the Fire-Fighting Officers:Focused on the Fire-Fighting Officers in Gyeonggi Province."A Master's Degree of Dongguk Univ., 68-70
- [10] Jeom-Mo Bae(2011),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ost-traumatic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of Policemen and Fire fighters."A doctoral Degree of University of Seoul. 133-141
- [11] Seung-Bok Lim(2011), "A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Gender Role Identity, Self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Female Fire Fighting Officials."A Master's Degree of Chungnam National Univ., 70-71
- [12] Law 119 Resque · Emergency, Article 10
- [13]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12) inside data.
- [14] Sang-Gyun Roh(2005), "Proposal for the improved emergency care system of 119 rescue."A Master's Degree of Yeonsei Univ., 59-60
- [15] Chang-Hoon Bang, Man-Dong Huh(2012), "Review a Factor Analysis on Firefighter's Workload."Conference of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310
- [16] Chi-Up Oh(2013), "Fire Officer Physical Enhancement Programme Status Quo and Development Plan."A Master's Degree of Korea National Sport Univ., 28
- [17] Rule of under Fire Service Force, an attached Form 3.
- [18] Gyeongbuk Fire Service Headquarters.(2012). inside data.



## 저 자 소 개

### 공 하 성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재난 과학을 전공하였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화재소방학회 평의원,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간안전인증 평가위원, 전라남도 석유화학단지 및 원자력발전소 Simulation화 자문위원, 소방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국가기술자격시험 소방분야 출제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33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 이 성 철



경일대학교 대학원에서 소방방재학을 전공하였다.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시간강사, 2013년 포항시 민방위대원 응급처치 강사, 대한심폐소생협회 BLS 강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경북지회 이사,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사회복지사, 경상북도 하트세이버 50호, 현재 포항북부소방서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 포항북부소방서

### 이 관 희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의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2009), “자원봉사센터평가에 대한 메타평가”(2011),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2013)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자원봉사, 소방행정, 평가, 지방·도시행정 등이다. 현재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강의교수 및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